

◆머느리권씨 열전 8-1

열녀 유인(孺人) 권씨(시종공파36世, 권연權淵의 딸)

이용덕(李用德, 예안 이씨)의 처妻



1978년 건립, 현대인으로서 새마을 운동 국성기에 건립되었으니 더욱 그 의미가 깊다.

열녀(烈女),절녀(節女),정녀(貞女)
조선왕조는 충효열의 이데올로기로 부당한 계급 사회를 만들어서 조직을 유지하던 시대이다. 공자의 충(忠)도 중(中)으로 심(心)을 가지는 중용(中庸)의 정신을 말하지만 곧 한대(漢代)에 와서 지배세력 에 의해 군왕에 대한 충성으로 변질된 것이다. 부부 유별,장유유서도 본래 뜻은 상호역할분담과 휴머니즘의 의미였던 것이다.
여기서 소위 열녀(烈女)는 무엇인가? 남성우위 사회와 제사전통을 위한 대를 잇는 것과 농경사회의 인력수급을 위한 노동력 생산을 위한 여성의 역할(출산,노동)을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열녀’라는 여성만이 가진 의무조항을 강요하고 이것이 가문의 명예와 혜택을 위해 악용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현대에 소위 페미니즘은 남녀간 갈등을 유발하는 반휴머니즘 적인 상황으로 까지 나아간 감 이 없지 않고 드물게 여성우위의 모계사회가 아직 존재하기도 한다.
열녀(烈女): 엄밀히 말해 세분된 개념의 하나일 뿐이다. 열(烈)은 글자그대로 ‘불이 세차게 일어나는 모습’과 같은 드물고 지금을 결혼을 꿈에 던져 죽는 것과 같다. 즉 남편의 사망에 같이 따라죽는 것을 말한다.
절녀(節女): 남편 사후에 정절을 지켜서 혼자 사는 것을 말한다. 절(節)은 ‘대나무 마디처럼 올 곧은 정신을 가지고 의리를 지킨다는 것을 말한다.
정녀(貞女): 정혼(約婚)을 하고 그 중간에 남편될 자의 사망시 절개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드물고 지금은 결혼을 꿈에 던져 죽고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뜻한다. 원불교에 정녀 제도도 2019년에 독신서약을 폐지하니 시대가 변한 것이다.
여기서 효(孝)도 너무 과도하여 삼년상을 치르면서 죽는 이도 있으니 만일 그 부모가 하늘에서 본다면 어땠아졌는가? 정약용 선생도 ‘부모가 호랑이에게 물리는 걸 막다가 죽으면 효이지만 부모를 따라 죽는 것은 불효이다’라고 하였다.

열녀(烈女) 권씨
권씨 열녀비는 전국에 수십개가 넘는다. 본 기자가 1200여곳의 권문명승지를 조사한 기록에도 나온다. 그 중 본 이용덕의 처를 소개하는 것은 이 권씨의 비가 1978년에 세워지고 권씨도 86살 이상을 생존한 현대인이고 그녀가 아무리 봉건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해도 나름 신조와 휴머니즘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이룬 자발적인 것이니 칭송할 만한 것이라 아니 할수없다.
본 기사를 소시적 길러준 안동 내앞 은진 송씨 다진(多眞) 백모님을 보아도 20세에 아들하나 두고 과



‘열녀안동권씨정려’, 절부(節婦)라고 하여야 정확한 개념이다. ‘정려’는 미풍양속 선양용 건물이다.

부가 되어 환갑날 까지 사시면서 절조를 지킨 것이니 장성해서 물어보니 ‘저 어린 것(1936년생 아들)이 데리고 온 자식으로 푸대접 받을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렇게 이은 자손이 5대에 이어져 수십명이나 그녀의 희생이 헛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용덕의 처 권씨는 더욱 아련한 아픔이다. 13살에 시집과 일년뒤 15살 남편이 죽고 무려 70여년을 혼자 살면서 그 가문을 이어온 것이다.
열녀 안동권씨(安東權氏)는 진사를 지낸 권연(權淵)의 딸로서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에 서 외암리로 시집왔다. 어려서부터 온순하고 효성이 지극하였는데 불행하게도 남편 이용덕(李用德)이 결혼 다음 해에 죽었다. 그러나 권씨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하며 집안을 화목하게 이끌었다. 후사가 없어서 나이 86세가 되어 조카 이흥선을 양자로 삼았다. 그러나 이흥선마저 세상을 떠나니 동생인 이득선의 아들 이준종을 손자로 삼아 가문을 일으켰다. 안동권씨의 행실은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어 문종과 마을 사람들이 뜻을 모아 열녀 정려를 세우게 되었다.
아산시 송악면 역촌리 74-1번지, 외암마을 주차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외암마을’은 민속촌이 되어있다.
외암마을 민속촌
외암마을 소개는 민속촌 사이트를 인용하여 본다.
마을 중요 민속자료 제 236호로 지정되어 있는 충남 아산 외암민속마을은 약 500년 전부터 부락이 형성되어 충청 고유격식인 반가의 고택과 초가 돌담



초가집과 기와집이 어우러진 외암마을의 독특한 풍경은 과거로 여행을 떠난 듯한 기분을 들게 한다. 외암마을의 가족들은 각기 특색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총 5.3km), 정원이 보존되어 있으며 다량의 민구와 민속품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가족주인의 관직명이나 출신지명을 따서 참판대, 병사대, 감찰대, 참봉대, 종손대, 송화대, 영암대, 신장대 등의 백호가 정해져 있으며 마을 뒷산 설화산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을 끌어들여 연못의 정원수나 방화수로 이용하고 있다.
설화산 남서쪽 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외암마을은 왜 외암이라고 불리웠을까?
‘외암’이라는 마을 명칭을 외암리의 서쪽에 있는 역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곳 역말에는 조선초기부터 이미 시흥역이 있었고, 외암마을은 이 시흥역의 말을 거두어 먹이던 곳이라서, 오양골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이 오양에서 외암이라는 마을명이 유래한 것으로 추측된다.
온양 고을의 안산(案山)인 설화산은 금북정맥(錦北正脈)에 속하는 산악으로 광덕산에서 갈라진 지맥이다. 다섯 봉우리가 솟아서 오봉산이라고 한다. 이 설화산 반대편 자락에는 조선초기 청백리(淸白吏)로 유명한 고불(古佛)맹사성(孟思誠)선생이 살았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고려말) 살림집으로 맹씨행당(孟氏杏堂)이 남아있다.

설화산의 서쪽에는 충청도 양반 마을을 대표할 만한 마을이 있으니, 곧 외암민속마을이다. 본래 이웃역말[시흥역]이 있어서 말을 먹이던 곳이라 하여 오양골이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동구에 수구막이 기능도 겸하는 마을숲은 큰비가 내리면 강당골과 설라리에서 흘러내려 온 두 개울물이 합하여 넘실댄다 하니, 이웃 반계(簣係)는 풍수에서 말하는 마을의 수구(水口)가 된다.
반계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강당골 유원지가 나오는데 외암선생이 [외암기]에서 말하는 후학들을 가르키는 터로 삼았던 석문용추(石門龍湫)이다. 지금도 관선재(觀善齋)의 바깥채는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고종때 서원을 없애려는 소용돌이를 피해 불교사찰로 모습을 바꾼 것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선생이 가르칠 당시의 것으로 보이는 ‘외암서사(巍巖書社)’ 편액은 외암마을 간재고택에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용추로 가는 길목에는 외암마을이 예안이 씨 집성촌이 된 유래가 있다. 이사종(李嗣宗)이 펴택 진씨 참봉 진한평(陳漢平)의 사위가 되어 이 곳에 들어온 것이 연이 돼 이사종은 봉수산에 서진의 묘를 정하고, 마을 밖에 정자를 세워 ‘열승정(閣勝亭)’이라 하였다 한다. 정자는 오래전에 없어졌지만, ‘열승정’이라는 지명은 지금도 전해지며, 그 기문(紀文)으로 간재고택에 온전히 남아 있다. 마을 정면의 야트막한 산은 면장산(眠藏山)이다. 주민들은 흔히 ‘면적산’이라고도 하는데 주변 산악 가운에 가장 먼저 떠내려와서 머물렀다 하는 이야기도 전한다. 마을의 조산은 멀리 유곡리에 우뚝 솟은 봉수산은 한 달음에 갈 수는 없지만 자동차로 지나는 길이라면 잠시 멈추고, 외암의 예안 이씨들이 대대로 문헌 명당을 음미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글 권오철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과 권기식 한중우호협회장 ‘2021 한중우호도시포럼’ 개최



‘2021 한중우호도시포럼’에 참석한 내빈들. 왼쪽 네번째부터 권기식 회장, 심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권영진 권영진(왼쪽) 대구시장과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이 박학수(오른쪽 뒤 화면) 연변조선족자치주 부주장과 함께 도시교류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사진 촬영



권영진(왼쪽) 대구시장과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이 박학수(오른쪽 뒤 화면) 연변조선족자치주 부주장과 함께 도시교류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사진 촬영

럼의 새로운 모델로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각 도시 고위급 책임자들이 코로나19 이후 경제·관광·문화·스포츠·방역 등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의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한중 도시 교류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영상축사를 한 것도 포럼의 위상과 중요성을 고려

했기 때문이다.
권영진 대구시장, 심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등이 참석하였고 판푸안(藍佛安) 산시성장(山西省長)과 박학수 연변조선족자치주 부주장, 왕웨이 이우시 부시장 등 각 도시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화상회의에 참여했다.
편집국장 권행완

〈특별기고〉權仁浩(철학박사, 대전대 명예교수, 한국동양철학회 명예회장)

전통계승과 온고지신 및 민본적 정치철학의 실사구시적 실학정신(17)



문경지교(刎頸之交) 혹은 문경지우(友)는 사마천(司馬遷, 145<135>~86?, BC. 자는 자장 子長)의 “사기”권81‘廉頗藺相如列傳’제21에 등장하는 고사성어이다. 중국 전국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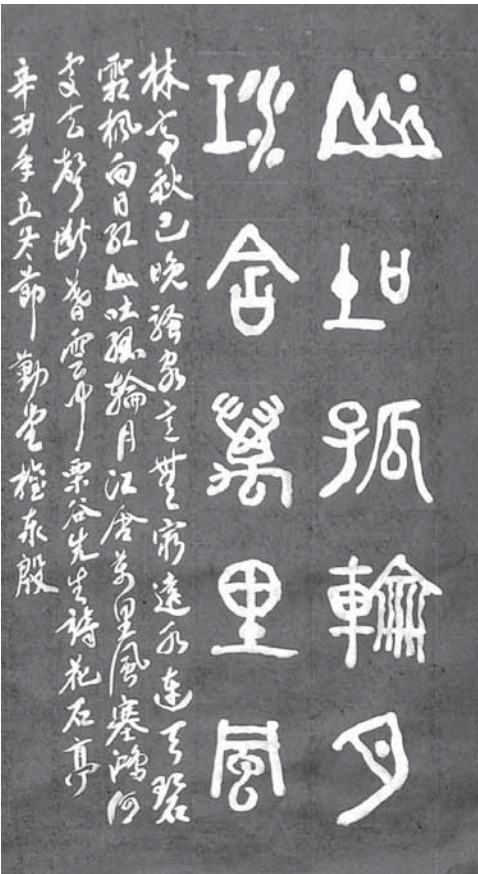
조(趙)나라에 인상여(藺相如)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무현(繆賢)이란 신하의 식객이었는데, 진(秦)나라와의 외교에서 몇 번의 큰 활약을 하며 상경(上卿)이라는 높은 벼슬에 올랐다.
한편, 조나라의 영파장군은 전장을 누비며 큰 공을 세웠던 자신보다 인상여가 높은 자리에 오르자 이를 매우 불쾌하게 여기며, 다음에 인상여를 만나게 되면 망신을 줄 것이라 다짐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인상여는 이후에 영파와 마주치지 않게 위해 계속 피해다녔다. 이를 본 인상여의 부하들은 인상여에게 불만을 토로하자, 인상여는 이렇게 말했다.
“강국인 진나라가 우리 조나라를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와 영파장군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영파장군과 다투게 되면 나라가 위태로워 질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영파는 웃통을 벗고 가시나무를 지고 인상여의 집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비천한 제가 장군의 너그러우심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목을 베어 내어 줄 정도의 우정(刎頸之交)을 나누게 되었다.
한편, “시경詩經”‘국풍國風’〈주남周南〉의 1. ‘관저(關雎:물수리)’편에 ‘요조숙녀(窈窕淑女 ; 교양 있고 아리따운 아가씨)는 군자호구(君子好逑 ; 멋진 사내의 좋은 짝)로서, 아리따운 아가씨와 금슬(琴瑟 비파와 거문고·5현·7현·와고금25현)로써 이에 벗하리(琴瑟友之)’라고 하였고, 이어서 ‘아리따운 아가씨와 종과 북을 치며 즐기라(鐘鼓樂之)’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의가 좋음을 ‘비파와 거문고 서로 음색화음이 잘 어울리듯 금슬상화(琴瑟相和)’라고 하든지 그냥 ‘금슬이 좋다.’고 하게 되었다.
또한“시경”‘소아小雅’〈녹명지습鹿鳴之什〉의 4. ‘상채(常棣 : 아가위꽃, 산앵두나무꽃, 산사자山査子)는 가족들을 모아 잔치를 벌였을 때의 모습을 노래한 것으로, 주(周)나라 무왕(武王, ?~?, 주나라 임금, 성은姬, 이름은 발發)의 동생 주공단(周公旦, ?~?, 성은 희, 이름은 단, 문항의 넷째 아들, 노魯나라에 봉해지고 성왕을 보좌하며 “주례周禮”를 지었다고 전해진다)

이 또 다른 형제인 관숙선(管叔鮮, ?~BC.114?, 성은 희, 이름이 선, 문왕의 셋째 아들이고 무왕의 동생이며 주공의 형이다)과 채숙도(蔡叔度, ?~?, 문왕의 다섯째 아들, 채나라에 봉해졌다)가 주나라를 배반하여 죽임을 당한 일을 안타까이 여겨서 지었다고 한다.
또 일설에는 주나라의 여왕(厲王, ?~BC.828, 주나라 10대왕, 재위 -BC.857~828년 -가운데 BC.841~828년은 공화共和, 성은 희, 이름은 호胡) 때, 왕실사람끼리 불화하는 것을 보고 소목공(召穆公)이 왕실사람들을 모아 놓고 그때 지었다고도 하고, 그 자리에서 주공단이 지은 곡(曲:詩)을 노래했다고도 한다.
주공단은 관숙선과 채숙도가 은(殷)의 후예인 무경(武庚)과 녹부(祿父)와 결탁하여 주나라에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진압하였다. 무왕이 죽은 후 주공단이 어린 성왕(成王)의 섭정을 하고 있었는데, 관숙선과 채숙도는 주공단이 왕에게 반역할 뜻을 품고 있다는 말을 퍼뜨려 주공단을 왕에게서 멀리하게 했다. 그러나 다시 주공단이 왕과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관숙선과 채숙도는 두려움을 느껴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다가 왕명을 받은 주공단에게 관숙선은 죽임을 당하고, 채숙도는 추방되고 말았다. 주공단이 노나라에서 죽자 주 성왕은 천자(天子)의 예악(禮樂)을 하사하여 보답하였다.
‘상채’ 시(詩 ; 아악雅樂)는 각각 4수 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은 대략 다음과 같다.

어쩌면 저리도 아름다울까 아가위(산앵두)나무의 활짝 핀 꽃은 언제나 저렇게 아름답게 무성한 것이지만, 무릇 지금 세상에서는 형제의 정보다 좋은 것은 없다네.//
생사의 위협을 받을 때에도 형제만이 서로 생각하고, 들과 못이 모여 있듯이 형제는 서로 만나기를 원하네. 할미새가 물가를 떠나 들판에서 괴로워하는 것과 같은 때에도 형제는 구하러 달려가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친구는 그저친 탄식만 할뿐 그렇지 못하다네.//
형제끼리 집안에서는 싸워도 밖에서는 형제는 서로 돕는데, 친구의 사이는 그렇지 않다네. 무사태평한 때에는 형제가 없어도 좋고 친구가 더 필요하다고 느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형제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차려 놓고 술을 마시는 즐거움이라네.//

처자와 함께 화목하여 거문고와 비파 소리처럼 서로 화합하고, 형제들 다 모여 평화로운 기분. 집안도 번영하고 처자도 즐기는 그 까닭을 묻는다면, 형제 화합이 그 근원임을 알 수 있으리라.’ (다음호에 계속)



화석정(花石亭)
율곡 8세 때 지은 시
〈八歲賦詩(팔세부시)〉

林亭秋已晚(임정추이만)
숲속 정자에 가을이 깊으니
騷客意無窮(소객의무궁)
시인의 생각은 끝이 없구나
遠水連天碧(원수련천벽)
멀리 보이는 물은 하늘에 잇닿아 푸르고
霜楓向日紅(상풍향일홍)
서리 맞은 단풍은 햇빛을 받아 붉구나
山吐孤輪月(산토고륜월)
산위에는 둥근 달이 떠오르고
江含萬里風(강함만리풍)
강은 만리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머금었네
塞鴻何處去(새옹하처거)
변방 기러기는 어디로 가는가
聲斷暮雲中(성단모운중)
울고 가는 소리 저쪽 구름 속으로 사라지네

화석정은 율곡이 8세 때 지은 시(八歲賦詩(팔세부시))이다. 큰 글씨는 이충 산吐孤輪月(산토고륜월) 산위에는 둥근 달이 떠오르고 / 江含萬里風(강함만리풍) 강은 만리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머금었네 구절이다.
율곡은 이 화석정(花石亭)을 너무나 나머지 수시로 기둥에 기림질을 해서 기둥이 반들반들했다. 율곡이 죽고 8년 후, 임진왜란(壬辰倭亂)이 발발하자 선조(宣祖)가 신의주로 몽진(蒙塵)하면서 임진강변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날이 어두워 강을 건너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때 선조를 인도하던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이 화석정에 불을 지르자 기름을 칠한 기둥이 활활 타올라 그 불빛 속에 선조가 무사히 강을 건넜다고 한다.

신축년 임춘절 근당勤堂 권태은權泰殷